

3) 순천출신의 판소리 창자

(1) 오곳준

오곳준에 대한 기록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가 유일하다. 그 기록에 따르면 오곳준은 순천 출생으로 박만순의 문도(門徒)이다. 그는 동파의 법제로 고종시대에 성창열(成昌烈), 이창운(李昌允) 등과 함께 쟁쟁한 명창으로 유명하였고 춘향가에 특장하였다고 한다. 정노식은 이 동백과 김창룡의 이야기를 빌어 그의 특장인 춘향가 가운데 옥중에서 봉사에게 해몽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¹⁾

춘향이 몽룡에게 편지를 부치고 그날 종일 상사일념이 더욱 간절하여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야속한 잠이 들어 한꿈을 얻으니 옥창전(玉窓前) 앵도화(櫻桃花) 어지러히 떨어지고 방문우에 허수아비 달려보이고 단장하던 체경이 한복판이 깨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보인다.

춘향이 깜짝 놀래 잠을 깨니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등스골세 찬땀이 흐른다.

“아마도 나 죽을 꿈인가보다 꿈이 하도 수상하다 아마도 흉몽(凶夢)이요 길몽(吉夢)일이 만 무하니 이괄청춘 이내 몸이 그런 님 못뵈옵고 남원옥중(南原獄中)에 서절원사(冤死) 하단말가 원통코 질통코나.”

이렇게 혼자 한탄하고 마음이 산란하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할 적에 이때에 옥문 밖으로 서문 밖 허봉사가 성중에 독경왔다 가는 길에 문복을 웨치며 지나가니 서울 봉사 같을진댄 ‘문수하오’ 웨련마는 시골봉사라 ‘문복하오’ 하겠다. 춘향이 반겨듣고 하도 답답하여 마침 들어왔든 옥사정을 보고,

“어제스밤 꿈이 하도 흉하니 장님불러 해몽이나 하려하오.”

옥사정도 가궁히 여겨 뛰어나가서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하고 불러노니

허봉사가 멈칫서서 두리번두리번 하며

“게뉘기 게뉘기니 어찌찾나.”

“옥에 가친 춘향이가 봉사님을 잠간 오시라 하오.”

봉사가 한 번 웃으면서

“날 찾기 의외로세 가세.”

하고 더듬더듬 눈을 번뜩번뜩이며 옥문으로 들어와 춘향의 방으로 들어와 앉으며

“이것 무안하이 원수엿 생애에 골몰하여서 요사이 어른들 윤감(輪感) 아히눔들 역질(疫疾)배 송하고 푸닥거리 방수보기 날바지 중병에 산경읽이 이사에 안택경(安宅經)읽이 게에도 참례하고 빈척다사(貧則多事)라더니 그리 하느라고 자네 말은 들은지 오래것마는 진즉 못와보고 청하여 왔으니 선사가 아니로세.”

“그럴 이가 있소 안맹하신데 노래의 기력이 어떠하시오.”

“내 염려는 말게 그래 그간 고생이 어떠하며 장독(杖毒)과 상처나 과치 않은가.(봉사가 그 중의 춘향이가 일색이란 말은 듣고 또 의문하겠다) 어디 상처를 좀 먼저보세 내가 보든 못

1)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123~129쪽.

하여도 내 손이 약손이라 내 손으로 만지면 장독이 천병만마진(千兵萬馬陣) 풀리듯 활짝 풀리어 없어지지 어디 응 어디 응.”

하며 더듬더듬 만져 차차찾아 속깊이 들어가는고나. 춘향이 멍렬한 성품에 손을 꼭잡고 뺨을 개뺨치듯하고 싶으나 점칠 일을 생각하여 분을 꼭참고 피로써 하는 말이

“여보 장님 들으시오 어마님이 말삼키를 서문 밖 허봉사는 눈은 안맹하였으되 근본이 양반이오 행신이 정대하여 사람마다 칭찬이오 내가 채 어렸을 때 매양보면 덤석 안고 한없이 사랑하여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입마추며 둥치더라 하시더니 제가 차차 장성하여 자조뵈옵지 못하여도 어젠 듯 하나이다.”

봉사가 이 말에 한편으로 슬땀이 물러앉으며 열없어

“고년의 자식 정신도 좋다 그는 참 그렇지 그는 그러하거니와 이 매질을 어느 놈이 하였나 김패두가 하였나 이패두가 치던가 왕방울쇠가 그리하였나 똑바로 일르소 자네 매질하던 놈 설치는 내 하여줍세 형방패두놈이 날받으러 내게로 오니 이후에 택일하려 오면 꼭 절명일(絶命日)을 받아주어 생급살을 마쳐 된답색이를 맥이리라 사람놈이 매질을 한들 고대지 못 비박아 쳤으랴 응.”

눈을 껌벅껌벅하며

“대체 나를 어찌 칭하였나.”

“다름 아니라 간밤에 횡몽을 하였삽기로 해몽도 하고 우리 서방님이 어느 때나 나를 찾으실까 길흉여부 점을 하라고 칭하였오.”

춘향이 꿈사연을 다 이야기하니

봉사 점을 치는데 코를 치 씻으며 열손가락을 거이발 모양으로 버스럭거리 주머니를 어루만져 은마구리 대모산용(玳瑁算筭)을 내어 손에 들고 눈을 헤번덕거리며 산통을 눈우에 번듯 들어 살살 내흔들면서

“천하언재(天何言哉)시며 지하언재(地何言哉)시리오마는 고지칙(叩之則) 응하시나니 감이순통(感而順通) 감이순통하소서 부대인자(夫大人者)는 여천지 합기덕(與天地 合其德)하며 여일월(與日月) 병기명(並其明)하며 여귀신합기길흉(與鬼神合其吉凶)하나니 금우태세을축오월갑자삭이십일갑인오시(今遇太歲乙丑五月甲子朔二十日甲寅午時) 해동조선국(海東朝鮮國) 전라좌도(全羅左道) 남원부봉죽면강선동(南原府鳳竹面降仙洞)에 거하옵는 곤명성씨춘향임자생(坤命成氏春香壬子生) 시을사 복차로 근복문(謹伏聞)하오니 신관사또 도입신정치초에 수청거절하였다고 횡피중장(橫被重杖)하고 인위수금(因爲囚禁)하니 지금이년(至今二年)에 백병이 총출하고 사생을 미관증 간밤일몽이 여차여차 하옵기에 지성으로 감복문하오니 유하길흉(有何吉凶)이온지 복걸 천지신명(伏乞 天地神明) 일월성신(日月星辰) 제갈공명선생(諸葛孔明先生) 표천망선생(表天網先生) 광복선생(郭璞先生) 소강절(邵康節) 물비소시(勿秘昭示) 물비소시.” 산통을 왈각왈각 흔들어서 산대를 빼어 세어보고 점사패를 풀겠다 봉사 대소하며 어허 점사패 잘났다. 매우 묘리있다. 관귀가 공을 마졌으니 관귀공은 송사정(訟事停)이라 금명 양일간에 놓일 것이오 천복귀인성(天福貴人星)에 역마발동(驛馬發動)하였으니 이몽룡이 과거하여 청포를 입고 분명 외임하여 나가는 형상이라 허허 대단 무서운 벼슬이로구나 호출인왕산(虎出仁旺山)하여 야도한강수(夜渡漢江水)라 이것이 내려오는 거동이로구나 내 점은 신점이라 헛되히 알지 말고 고름 맺고 내기하제.

“말씀만 들어도 반가우나 해몽이나 하여주시오.”

“그리하지 낙화하니 능성성실(能成成實)이오 경파(鏡破)하니 기무성(豈無聲)에 꽃이 떨어져 보였으니 열매맺을 것이오 거울이 깨어져 보였으니 소리내일 기상이라 문상에 현우인(懸偶

人)하니 만인개양시(萬人皆仰視)라 허수아비를 문우에 달았으니 만사람이 울어러 볼패라 산붕(山崩)하니 작평지(作平地)요 해갈(海渴)하니 용안견(龍顏見)이라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다가 말르면 용의 얼굴을 능히 볼 것이니 허 거 참 좋다. 걱정마소 평생에 못 잊던 낭군 올 것이니 두고보아.”

이리 수작할제 뜻밖에 까마귀가 옥담에 와 앉더니 가옥가옥 울거늘 춘향이가

“방정마진 까마귀야 나를 잡아가려거던 줄이지나 말려무나.”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가만있소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제 좋다좋다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요 옥짜는 집 옥짜라 아름답고 질겅고 좋은 불원간에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마소 오늘 일진이 갑인(甲寅)이라 병진일유시(丙辰日酉時)에는 쌍가마탈 일이 있는데 가마를 못타면 집동우리라도 탈테이니 걱정마소 걱정마소 지금은 복채 천향을 준대도 아니받아 갈 것이니 두고만 보고 영귀하게 되는 때에 팔세나 부대마소.”

“정령 그럴진대 수고를 갚으리다.”

“여보소 근래 혼한 감투나 하나 벌여주소 나 도라가네.”

하고 지팽이와 담뱃대 들고 일어선다.

“예 평안이 가옵시고 후일 상봉하옵시다.”

춘향은 봉사를 보낸 후에 혼자말로

“일이 점과 같을진댄 무슨 한이 있으라마는 이런 년의 팔짜에 웬걸 점이 맞으리 장탄수심으로 지낼적에.”

(2) 오바둑

1901년 순천에서 태어나 유성준에게서 춘향가를 배웠다고 문순태는 언급하고 있다.²⁾ 이로 보면 그는 동편에 속한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다.

(3) 박초월

1913년 주암면에서 태어나 전북 남원군 운봉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본명은 삼순(三順)이고, 아호는 미산(眉山)이다. 12세 때 남원의 김정문에게서 3년 동안 바탕소리를 익히고 15세 때 송만갑에게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이수했다. 1930년 전주 명창대회에서 1등상을 받고 여러 레코드사에서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를 취입하였다. 1933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에 들어가 대동가극단의 창극에서 이화중선과 함께 주인공으로 활약하였고, 1939년에는 동일창극단으로 옮겨 박귀희와 짝을 이뤄 주인공을 도맡아 인기를 누렸다.

일제 말에 소리를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해방 후 상경하여 여성국극 동지사를 창단하였다. 1955년에는 박귀희와 함께 한국민속예술학원(현 국악예술학교의 모체)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1966년에는 선대 명창 156위의 신주를 모셔 제사를 지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1973년에는 수궁가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79년 서울시 문화상 국악부문을 수상하였고, 1984년에는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2) 문순태, 앞의 글, 84쪽.

1983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조순애, 한농선, 성우향, 남해성, 조통달, 전정민, 김봉례 등이 있다.